

우리는 다음 본문들을 함께 살펴봅니다:

- 요한복음 11:47-56
- 출애굽기 30:11-34:35
- 에스겔 36:16-38

그리고 세 본문에 공통으로 흐르는 구조를 추적합니다:

**타락 → 중보 → 하나님의 영광 → 분리 → 모음(재집결)**

---

## I. 권위의 위기

### 요한복음 11:47-48

나사로가 살아난 후,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공회를 모읍니다.

“이 사람이 이 표적을 많이 행하니 우리가 그대로 두면 모든 사람이 그를 믿을 것이요, 로마인들이 와서 우리 땅과 민족을 빼앗아 가리라.”

이들의 관심은 신학이 아니라 **정치적 보존**입니다.

그들이 두려워한 것은:

- 성전 권위의 상실
- 국가적 통제의 상실
- 로마의 보복

이 장면은 출애굽기 32-34 장(출 30:11-34:35 단락 안에 포함됨)을 떠올리게 합니다.

금송아지 사건에서:

- 백성은 공황에 빠지고
- 지도력은 흔들리며
- 대체 권위가 만들어지고
- 두려움이 우상숭배를 낳습니다

두 본문은 같은 패턴을 보여줍니다:

출애굽기	요한복음
모세의 부재에 대한 두려움	예슈아의 영향력에 대한 두려움
금송아지 제작	예슈아 제거 음모
지도력 위기	산헤드린 위기
불안정에 대한 공포	로마에 대한 공포

두 경우 모두 지도자들은 기록함이 아니라 통제력 상실에 대한 두려움으로 행동합니다.

---

## II. 가야바와 “대속”의 언어

### 요한복음 11:49-52

가야바는 말합니다:

“한 사람이 백성을 위하여 죽어서 온 민족이 망하지 않게 되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하다.”

요한은 이것을 무의식적 예언으로 해석합니다.

이제 출애굽기 32-34 장과 비교해 봅시다.

금송아지 사건 후, 모세는 말합니다:

“그렇지 아니하시면 원하건대 주께서 기록하신 책에서 내 이름을 지워 버려 주옵소서.” (출 32:32)

토라의 구조는 다음과 같습니다:

- 죄가 나라를 위협하고
- 진노가 일어나며
- 중보자가 심판과 파멸 사이에 서게 됩니다

그러나 중요한 차이가 있습니다:

모세	가야바
자신을 자발적으로 내어놓음	타인을 정치적으로 희생시킴
사랑으로 중보	두려움으로 전략
자비를 구함	체제 안정을 구함

가야바는 “대속”의 언어를 말하지만, 언약적 마음은 없습니다.

그러나 요한은 이렇게 해석합니다:

그는 그가 그 민족만 위할 뿐 아니라 흠어진 하나님의 자녀를 모으기 위하여 죽을 것을 예언한 것이다.

이 “흠어진 자들을 모음”이라는 언어는 바로 다음 본문과 연결됩니다.

---

### III. 흠어짐과 재집결

#### 에스겔 36:16-24

Ezekiel 36 장에서 이스라엘은:

- 열방 가운데 흠어지고
- 우상숭배로 더럽혀졌으며
-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했습니다

그러나 여호와와는 선언하십니다:

“내가 너희를 열국 가운데서 취하여 모으고... 맑은 물을 너희에게 뿌려 정결하게 하며...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겠다.”

구조는 다음과 같습니다:

1. 죄가 땅을 더럽힘
2. 흠어짐 발생
3. 하나님의 이름이 욕되게 됨
4. 하나님이 자기 이름을 위하여 행동하심
5. 정결케 함
6. 새 마음
7. 재집결

요한복음으로 돌아가면:

- 지도자들은 국가적 파괴를 두려워하고
- 한 사람을 제거하기로 결정하며
- 그 죽음이 흠어진 자들을 모으는 결과를 낳는다고 해석됩니다

이것은 에스겔적 언어입니다.

요한은 예슈아의 죽음을:

재집결과 정결의 메커니즘으로 제시합니다.

---

#### IV. 영광의 계시 – 빛나는 얼굴

출애굽기 34:29-35 에서 모세는 얼굴이 빛나는 상태로 내려옵니다.

금송아지 위기는 멸망으로 끝나지 않고:

- 언약 갱신
- 돌판 회복
- 하나님의 영광 계시

출애굽기 30-34 의 흐름:

단계	흐름
속전 (30:11-16)	생명 보존
향	중재
금송아지	국가적 죄
중보	진노 억제
영광	얼굴의 빛

요한복음 11 장에서도:

나사로의 부활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냅니다(11:4).

그러나 그 영광은 곧 죽음의 결의를 촉발합니다.

그 결의는 더 큰 계시로 가는 길이 됩니다.

공통 교훈:

영광은 안정 전에 위기를 통과한다.

---

## v. 성전과 임재

출애굽기 30 장:

- 향단
- 관유
- 거룩한 공간
- 매개된 거룩함

요한복음 11 장:

- 성전 지도부
- 대제사장
- 희생 논리
- 국가 보존

차이점은 뚜렷합니다:

출애굽기에서는:

- 제사장이 거룩함을 보호합니다
- 중재가 임재를 회복합니다

요한에서는:

- 제사장이 권력을 보호합니다
- 중재가 제거 행위로 바뀝니다

성전 체제는 금송아지의 논리를 반복합니다:

어떤 대가를 치르더라도 통제를 유지해야 한다.

---

## vi. 이름, 더러움, 하나님의 주권적 개입

에스겔 36 장:

“너희를 위함이 아니요, 내 거룩한 이름을 위함이라.”

출애굽기 32-34 장:

모세는 말합니다:

“어찌하여 애굽 사람들이 말하기를...”

두 본문 모두 **하나님의 이름**이 중심입니다.

요한복음 11 장에서는:

“로마가 우리 땅과 민족을 빼앗아 갈 것이다.”

그러나 서사는 이것을 재구성합니다.

진짜 문제는 로마가 아니라 언약적 운명의 성취입니다.

## VII. 통합 구조 정리

구조	출 30-34	겔 36	요 11
죄/더러움	금송아지	우상숭배	지도자의 불신
위협	하나님의 진노	포로	로마
중보	모세	하나님 자신	한 사람의 죽음
하나님의 이름	중심	열방 가운데 욕됨	암묵적으로 존재
정결	언약 갱신	물 + 새 마음	흩어진 자들의 모임
영광	빛나는 얼굴	회복된 땅	죽음을 통한 영광

## VIII. 더 깊은 신학적 흐름

출애굽기 30:11-34:35 의 핵심 구조는:

속전 → 향 → 죄 → 중보 → 영광

요한복음 11 장은 같은 구조를 사용하지만, 중보자의 역할을 재해석합니다.

에스겔은:

- 정결의 물
- 새 마음
- 재집결
- 재건

을 약속합니다.

요한은 죽음의 결의를 재집결의 전환점으로 제시합니다.

## IX. 신학적 긴장

토라 모델은 항상 강조합니다:

- 회개
- 언약 갱신
- 테슈바를 통한 자비

요한은 강조합니다:

- 의로운 자의 죽음을 통한 구속

이것은 에스겔 36 의 성취 방식에 대한 해석상의 차이입니다.

토라적 관점:

중보 + 회개 + 언약 회복

요한적 관점:

한 의인의 죽음을 통한 모음

---

## X. 최종 요약

요한복음 11:47-56 은 출애굽기 30:11-34:35 와 에스겔 36 의 구조를 반영합니다:

1. 지도력 위기
2. 두려움에 근거한 결정
3. 대속의 언어
4. 국가적 위협
5. 재집결 약속
6. 갈등 후 드러나는 영광

그러나 역할이 뒤집힙니다:

- 모세는 자발적으로 중보합니다.
- 가야바는 정치적으로 희생을 제안합니다.
- 에스겔은 하나님이 직접 정결케 하심을 약속합니다.

- 요한은 죽음을 정결의 전환점으로 제시합니다.

세 본문은 모두 같은 질문을 다룹니다:

지도력이 실패할 때, 누가 언약을 보존하는가?

그리고 답합니다:

- 두려움이 아니다.
- 정치적 통제가 아니다.
- 위기 속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주권적 개입이다.